



중국 수출길 막힌 ‘용과’의 새로운 변신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對중국 베트남 수출길 봉쇄

2021년 12월, 중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베트남을 잇는 주요 3개 국경(랑손성) 검문소를 봉쇄하였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현재 5천대 이상의 트럭이 랑손 국경 검문소에 발이 묶여 있고 특히 신선 농산물을 실은 트럭의 경우, 통관 지연으로 인해 대부분의 농산물이 썩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1년 9월부터 워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천명(1일) 씩 발생하고 있으며 對중국 주요 수출 농산물인 용과에서 코로나19 검사 양성 반응이 검출돼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이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다. 양국간 농수산물 교역액은 100억 달러 이상으로 전체 농수산물 수출의 19.2%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길 봉쇄 조치로 인해 현재 베트남 농가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베트남 북부 랑손성 국경 검문소 사진



용과 부패를 막기 위해 널려 있는 모습

용과내수 소비 확대 통한 농가 살리기 운동 전개

베트남산 용과는 남부 빈투언성에서 주로 생산되며 재배면 적은 약 3만 헥타르(ha)에 연간 약 60만 톤이 생산되어 중국, 미국, 태국 등 40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베트남산 용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길 봉쇄로 인해 베트남산 용과 가격이 최근 5,000~10,000동 (VND/kg, 한화 약 250~500원)까지 하락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최근 발생한 용과 수출길 봉쇄로 인한 용과가격 하락은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베트남 내 식품기업들이 용과만두, 용과케이크, 용과버거를 출시하는 등 내수시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약 1개월 만에 35,000~45,000 동(VND/kg 한화, 약 1,750~2,750원)으로 가격이 회복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식품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용과를 활용한 라면, 술 등을 연구·개발중에 있으며, 신제품을 출시하여 용과 소비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20년 개발된 용과 버거 및 용과 만두



용과를 활용한 술 및 라면 연구·개발

자료 베트남 온라인 언론매체 (Thanh Nien)

작성자 하노이지사 최성곡

Key Point

베트남에서는 용과 등 다양한 열대과일을 가공하여 만든 빵, 과일 건조식품 등 과일 가공식품이 인기 건강간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높은 안전성, 신뢰도 등 우수성이 잘 알려져 있는 한국산 과일 가공식품을 활용한다면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베트남 농가 피해 회복을 위한 현지 인플루언서의 라이브스트리밍 방송을 통한 판매, 신제품 연구·개발 등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하기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수입산 농식품에 대한 소비 위축 변화도 예상된다. 그러므로 한국 수출업체는 신선농산물의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을 통해 신수요 발굴 등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